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본당 총회장 선임

- 최석준 마르코 (현 부회장)
- 근거 :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4조 2항

● 모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1Cu.-우리어머니	2월 18일(일), 12:00	-
2Cu.-사도들의 모후	2월 18일(일), 12:00	강 당
임원 모임	2월 21일(수), 20:00	식 당
사목협의회	2월 22일(목), 19:40	강 당
울뜨레아	2월 25일(일), 11:40	강 당
성체분배자회	2월 25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 교 육

- 레지오 1차 전단원 교육
- 대 상 : 레지오 단원(일반신자도 참석 가능)
- 2월 18일(일) 14:00, 대성전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 시 : 3월 1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3월 2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사순 특강 (수요일 저녁 20:00)

일 자	제 목	강 사
3월 06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시기 (친교)	김영선 루치아 수녀님
3월 20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시기 (참여, 선교)	(마리아 정교자 프란치스코회)

● 2024년 첫영성체 교리 안내

- 대상 :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6학년 어린이(2024학년)
- 일정 : 3/2~6/01, 첫영성체: 6/02(일)
- 부모님 첫 모임 : 2/24(토) 17:00, 소성전
- 교리 : 소성전 교육관(토, 14:00~15:30)
- 신청 : 사무실(2/4~24까지)
- 문의 : 김국화 교사 010-5336-2802(문자로 문의)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

2/19(월)	2/20(화)	2/21(수)	2/22(목)	2/23(금)
사목위원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2/26(월)	2/27(화)	2/28(수)	2/29(목)	3/01(금)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알 림

- 다음 주(2월 25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2/2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1구역	청 소	2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2월 07일 ~ 13일)

교 무 금	5,020,000 원
주일헌금	4,822,200 원
오훈석100만원 박승환 50만원 이승문 15만원	
감사헌금	손진희30만원 김기에 5만원 홍윤아10만원
안중걸 5만원 4구역국수잔치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2/18	백희자	이응남	김영균	장익근	정재경
2/25	이영민	오성환	김진수	안상록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2/18	장인홍	옥윤필	최영만	이운영	박형순
2/25	장익근	하재민	오광운	최석준	박용환

화답송



주 님 당 신계약 을 지- 키 는이 들에- 게 당 신 의모든길 은 자애 와진실이옵니 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67.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지구는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였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다-그리스도교의 사상에 대한 비난에 응답하도록 해 줍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땅을 “지배”하게 했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인간을 본성적으로 지배적이고 파괴적인 존재로 묘사하면서 유다-그리스도교 사상이 무분별한 자연 착취를 조장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교회가 이해한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성경을 부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지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강력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은 그 맥락 안에서 올바른 해석학을 통하여 읽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아야’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구다’라는 말은 밭을 경작하고 갈거나 밭일을 한다는 뜻이고, ‘돌보다’라는 말은 보살피고 보호하며, 감독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생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풍요로운 땅에서 얻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땅을 보호하고 후손들을 위하여 이 땅이 계속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절대적 소유에 대한 모든 주장을 물리칩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68. 하느님께 속한 땅에 대한 책임은, 지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법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교한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고 그분께서 저들을 세세에 영원히 세워 놓으시고 법칙을 주시니 아무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율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위한 다양한 규범을 인간에게 차근차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체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들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 새가 어린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 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렛날에 쉰다는 것은 인간이 쉰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와 나귀도 쉰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피조물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